

‘퇴직연금 환승’ 간편화 도래... 증권사, ‘머니무브’ 유치 촉각

2분기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 약 94兆... 전년비 18.82% 성장

증권사, 수익률·다양성 등 장점 시장 선점 위해 서비스 역량강화 대행사 위주로 쏠림 현상 보여

오는 15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대’ 개막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머니무브’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는 약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절반을 은행권이 선점하고 있지만, 신 제도와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증권사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사 내에서도 대행사 위주로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증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94조512억원으로 집계됐다. 79조1534억원이었던 전년 동기보다 약 18.82% 성장한 수치다. 동일 기간 금융권 전체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4.02% 늘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증권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퇴직연금 가입사 이전하는 투자자’ 이미지.

사의 성장 규모가 더욱 주목된다. 전 금융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3년 2분기 345조8140억원에서 올해 2분기 394조3034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험업종은 6.62%, 은행업종은 15.50% 상승했다.

오는 15일부터는 퇴직연금 현물이전(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환승’이 간편해졌다. 제도가 도입되

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 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옮길 수 있다. 은행에서 증권, 증권에서 은행 등 퇴직연금 이사가 손쉬워진 것이다.

2분기말 기준으로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은 은행(약 207조원)에서 운용하고 있다. 다만 평균 수익률

은 은행(4.87%)보다 증권사(7.11%)가 더 높게 나타나면서 증권사들은 ‘머니무브’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약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지각변동에 증권사들이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사들은 활발한 고객 유치를 나서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품의 다양성, 수익률, 상장지수펀드(ETF) 이용자들에게는 편의성까지 전반적으로 금융투자업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는 투자자들이 은행·보험업종에 비해 경쟁력 있는 증권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사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 적립금 25조원을 넘긴 미래에셋증권은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일일 서비스를 개발했다. 더불어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푸른씨앗’도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전 상담을 완료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3·4위에 해당하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도 RA 투자 서비스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등 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한 투증권은 지난 8월부터 퇴직연금 현물 이전 사전예약 이벤트를 실시 중이며,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최초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퇴직연금 시장 역시 대행사 위주로 쏠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대차증권을 제외하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0조원이 넘어가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유일하다. 올해 2분기 기준 현대차증권의 퇴직연금 운용 금액은 16조7324억원으로 운용 금액 규모 2위에 해당한다. 다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을 합친 계열사 비중이 약 86.68%에 달해 계열사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연이은 코스피 이전... “일시 변화보다 기초체력 집중해야”

에코프로비엠·HLB 등 이전상장 추진 최근 주가상승으로 이어진 사례 없어 실적 부진 원인... 근본 가치 안 바뀌어

코스피 상장 이전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닥 기업들은 주가 안정, 투자자 유입,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을 앞세워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없이 이전상장이란 일시적 재료를 앞세우는 기업들의 행태에 선의의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 HLB, 코스메카코리아 등이 유가증권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이전상장 계획을 공식 결의했다. 이르면 이달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5월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결정’ 공시를 내고, 지난 8월 29일 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HLB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전 상장을 계획했으나 지난 5월 간담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FDA(미국 식품의약

국) 승인이 불발되면서 이전 시점도 연기됐다. 미국 FDA 승인을 받고 기업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뒤 코스피로 이전할 것으로 보여 FDA 승인 일정에 따라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이 진행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선 이전 상장을 호재로 여긴다.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과

외국인 투자자 유입,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전 상장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이전 상장일 하루 만에 8.97% 급락했으며 포스코DX와 파라다이스도 이전 상장 첫날 각각 6%, 4% 넘게 하락했다. 이전 상장 첫날에 비해선 포스코DX와 엘앤에프는 각각 56.68%, 19.85% 내렸으며 파라다이스는 23.81% 떨어졌다.

실적 부진이 이어진 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엘앤에프가 3분기 4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라다이스도 3분기 실적 이익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

는 등 성장폭이 둔화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파라다이스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2621억원, 영업이익은 24.7% 줄어든 43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인스파이어 카지노 진입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보다 경쟁 격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더 큰 상황인 점을 반영해, 3분기 및 향후 실적 전망치를 하향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전 상장을 해도 근본적인 기업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이전 상장이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실적 개선보다는 단순히 수급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수급상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일시적인 수급상의 변화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투운용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 필요”

한국투자디딤CPI+펀드로 실현

“은퇴 이후 실질구매력 확보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한국투자디딤CPI+펀드의 운용 목표를 ‘소비자물가지수(CPI) 초과를 추구’하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디딤CPI+펀드의 운용역인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10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투자디딤CPI+펀드 출시 기자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5일 출시된 ‘한국투자디딤CPI+펀드(채권혼합-재간접형)’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강성수 상무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원리금보장 상품 비

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은퇴 이후 실질구매력 확보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한국투자디딤CPI+펀드의 운용 목표를 ‘소비자물가지수(CPI) 초과를 추구’하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해당 펀드와 동일한 모펀드로 운용 중인 ‘한국투자MySuper알아서 펀드 시리즈’의 운용역이기도 하다. 해당 펀드 시리즈가 현재 디폴트 옵션 편입 밸런스펀드(BF) 유형 가운데 ‘최근 1년 수익률 1위’(8일 에프앤가이 드 기준)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한국투자디딤CPI+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된다는 게 한투운용의 설명이다.

강 상무는 “은퇴자금 적립기와 인출기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자산배분형 펀드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범준 연금마케팅 부장은 한국투자디딤CPI+펀드의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 보수’를 꼽았다.

이 부장은 “한국투자디딤CPI+펀드는 한투운용의 자체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에 기반해 운용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위험조정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국 성장주와 국내 채권을 조합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ETF를 활용한 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인 한국투자디딤CPI+펀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 보수가 적용됐다는 점 외에도 이미 성과 입증된 한국운용의 우수한 자산배분 펀드 운용 능력이 강점”이라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토스증권, 김규빈 신임 대표이사 선임

전임 김승연 대표 사임

토스증권이 신임 대표이사에 김규빈 제품총괄(Head of Product·사진)을 선임했다고 10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지난해 제품총괄로 발탁된 이후 1년 만에 대표로 선임됐다. 토스증권 측은 “이번 인사는 토스증권의 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 강화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김승연 대표는 지난해 4월 토스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지만 ‘개인적 사유’로 6개월 임기를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 이로써 토스증권은 출범 4년 차에 네 번째 대표를



선임하게 됐다.

김 신임 대표는 1989년생으로,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전 자컴퓨터공학부를 졸업했다. 지난 2012년 모바일 선물 서비스 ‘나노조’를 창업한 후 이베이코리아, 토스(비바리퍼블리카)를 거친 인물이다.

지난 2022년 1월 토스증권에 프로덕트 오너(Product Owner, PO)로 입사한 이후 실시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출시, 투자자들의 토론의 장으로 성장한 커뮤니티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서비스 혁신을 이끌었다. 지난 2023년 최초로 분기 흑자 달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허정윤기자